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 Lord; Lord, hear my voice!” (Psalm 130:1)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시편130:1)

To our Village family,

빌리지 성도 여러분께,

We have witnessed a challenging season in our Nation’s life these last few months with COVID-19, which we have been speaking to as regularly as we can. (Pastor Ken and the Management Team have been sending regular updates via email or video message in order to keep the congregation up to speed on the evolving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trajectory of our COVID response).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COVID-19로 인해 미국 내 생활에 있어 힘든 시간들을 목도해 오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켄 목사님과 관리팀은 성도 여러분들이 COVID로 인한 변화하는 도전 과제나 기회, 그리고 변화하는 방법들에 있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During these last months, we have also witnessed the rise of violence and racism against Asian Americans and the disproportionate effect the coronavirus has had in communities of color including in particular Latino, Native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The effects of this disease, like so many other things in our nation, break differently along racial and socio-economic lines.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과 인종 차별의 증가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유색 인종 공동체에 미친 불균형한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인종 및 사회 경제적 측면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ore pointedly, recent weeks have painfully brought to the surface racial disparity, divide, and bias with regard to skin color, that has existed as America’s original sin and continues to erode our country.

더 분명하게 말하건데,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원죄로 존재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미국을 침식시키고 있는 피부 색에 있어서의 인종적 차이, 분열 및 편견이 고통스럽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We, the Leadership Team at Village (the elders, elder advisors, and staff management team) feel compelled and burdened to speak, not just to the COVID-19 crisis, but to this insidious racial injustice that is in opposition to the things of God. We desire to name the wrongs and the outrage felt by all— especially our Afric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and acknowledge the deep history of complicity and silence by the American church with regard to racial inequality and violence against black and brown bodies.

우리, 빌리지 리더십 팀 (장로, 장로 고문 및 직원 관리 팀)은 COVID-19 위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이 위험한 인종적 불의에 관해서도 부득불 언급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 자매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당함과 분노를 밝히고 싶으며, 인종적 불평등과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미국 교회의 공모와 침묵의 깊은 역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We want to speak clearly: if any part of the body suffers, the whole body suffers.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 신체의 일부가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We have members of our church and members in the body of Christ suffering greatly under the wrong, inexcusable, and terrifying violence against George Floyd in Minnesota, Ahmaud Arbery in Georgia and so many others. We feel the pain of mothers. We sense the hopelessness of fathers. We see the ache of a community. We have an obligation to suffer with, lament with, and pray with our Afric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We must use our voices to call out and name that things are not as they are supposed to be—especially when instances of violence follow well-trodden and historic patterns of racial inequity.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성도님들이 미네소타의 George Floyd, 조지아의 Ahmaud Arbery, 그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진 잘못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폭력 아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버지들의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애도하며, 기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폭력 사례가 지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인종적 불평등의 패턴을 따를 때, 그 전과는 다르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Let us be clear, we respect and have compassion for our first responders. We value them, suffer with, lament with, and pray for them. Our love for those who put their lives on the line regularly compels us not to remain silent when those same brothers and sisters are suffering trauma in these moments as well. Both trauma from a nation that lives with stereotypes of race, and trauma from having to pick up the pieces and continue to stand strong for our society when

they themselves are struggling with the effects of violence, injustice, and instances of needless loss of life. In these moments, we all lose. There should be no sides.

분명하게, 우리는 최전방에서 일하고 계신 퍼스트 리스폰더(first responders)분들에 대한 존경과 동정심을 갖도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함께 슬퍼하며, 그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이 순간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또한 침묵하지 말것을 꾸준히 요구합니다. 인종적 고정관념을 지닌 국가로 인한 트라우마와 폭력, 불의, 불필요한 인명 손실의 사례들의 여파에 스스로 고군분투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애쓰며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 굳세게 버텨야 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순간들에 있어, 우리 모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편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We are Christian leaders. We seek to stand with the God of justice. We seek also to stand with all who labor in pursuit of that justice. Pursuing justice is never easy. Rev. William Barber puts it succinctly, “There is not some separation between Jesus and justice; to be Christian is to be concerned with what’s going on in the world.”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과도 함께 해야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윌리엄 바버 목사님은 간결하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공의 사이에는 어떤 간극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As many around the country take to the streets to voice their pain and to make known their protest with full-throated voices, we declare our solidarity with this action, remembering that Jesus too turned tables. We in no way condone violence against persons or property and urge peace and nonviolence in the manner of Christ’s full teachings on evil and injustice. We don’t want to let non-violence, however, be confused with inaction.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 소리내고 그들의 항변을 알리기 위해 소리 높여 외치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상을 엮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행동을 취함으로 그들과 우리의 연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명이나 소유물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며 악과 불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본받아 평화와 비폭력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비폭력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We cannot talk about other troubles, seek to nurture our community spiritually, and not name what is so clearly and unmistakably in front of us. We name it not simply to join a chorus, but seeing it as a necessary step of faithfulness in leading our church into righteousness.

만약 우리 앞에 존재하는 분명하고 틀림없는이 문제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지역 사회를 영적으로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히는 것은 단순히 같이 합류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로 이끄는 데 필요한 충실한 단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While there are many issues in the news deserving of discussion, at this point, we want to clearly address the very real issue of race before us. As Dr. Martin Luther King Jr. once said, “There comes a time when one must take a position that is neither safe nor political nor popular, but he must take it because his conscience tells him it is right.”

논의 할 가치가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실질적인 인종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전하지도 정치적이지도 인기도 없는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있지만, 자신의 양심이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한다.”

We are committed to the way of love and of unity. And we remain committed to the dignity of all God’s children. “What you do for the least of these, you do for me.” Matt 25:40

우리는 사랑과 연합의 길에 헌신하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존엄성에 헌신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40

We seek to faithfully remain a multicultural commun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문화 공동체를 충실하게 유지할 것을 추구합니다.

Serving you in humility, 여러분을 겸허히 섬기며,

Village Board and Advisors 빌리지 이사회 및 고문단 &

Village Staff Management Team 빌리지 직원 관리팀 드림.